

“건축 거장들이 완성한 귀한 문화자산 광주시민 손으로 소중히 가꿔나가야”



광주디자인비엔날레 최고 히트상품인 어번폴리 조성의 '일동 공신' 서인석(왼쪽)·정현윤씨가 15일 장동 서거리 어번폴리 앞에 앉아 환하게 웃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

어번폴리의 숨은 공로자 광주시청 정현윤·서인석씨

“어번폴리는 광주 시민이 함께 가꿔야 할 소중한 문화 자산입니다.”

제4회광주디자인비엔날레(10월 23일까지) 특별프로젝트 어번폴리(Urban Folly)의 성공에는 숨은 일꾼들의 노력이 있었다. 어번폴리는 도미니크 페로 등 세계적 건축가들이 도심 10곳에 기념할 만한 건축조형물을 세운 프로젝트다.

광주비엔날레 재단(이하 재단)이 모든 사업을 맡아 진행했는데, 광주시가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도시디자인과 정현윤(여·39·6급)·서인석(46·7급)씨를 재단에 파견했다.

이들은 지난 7월부터 기초공사 등 어번폴리 시공 과정의 모든 잡일을 도맡아 하면서 조형물들을 완성시켰다. 유명 건축가들이 대거 참여해 무더기 어번폴

리를 세우는 것은 세계 건축사에서도 유례가 없던 일이라 웃지 못할 일이 많았다. 공사가 장기화되면서 어번폴리의 가치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일부 상인들로부터 먹살을 잡히기도 하는 등 모든 것은 일도 이들의 몫이었다.

정씨는 “한꺼번에 10개의 건축물을 조성하다 보니 일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고, 민원도 많아 매일 울면서 일을 해야 했다”고 말했고, 서씨도 “어번폴리를 알리기 위해 8차례 설명회를 했고, 집집마다 찾아다니며 설득도 했다”고 회상했다.

발품을 판 덕분에 성과는 더욱 컸다. 지난 1일 개막식 이후 어번폴리를 찾는 국내외 관광객의 발걸음이 줄을 잇고 있으며, 낡은 구도심 풍경을 새롭게 재해석했다는 호평도 받고 있다.

정씨는 “어번폴리는 도심의 중요 ‘혈’에 ‘침’을 놓는 프로젝트다”면서 “몸에 있는 혈에 침을 놓으면 건강해지듯 광주도 어번폴리로 인해 더욱 아름다워질 것”이라고 평했다.

서씨도 “최근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어번폴리에서 거리 공연을 여는 등 시민의 삶 속 공간으로 자리 잡아 가고 있다”면서 “어번폴리의 성공에는 손해나는 줄 알면서도 공사에 참여했던 시공사의 도움도 컸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어번폴리 프로젝트에는 후안 헤레로스(스페인), 플로리안 베이겔(독일), 나테레 데라니(미국), 알레한드로 자에라 폴로(스페인), 조성룡, 프란시스코 산인(미국) 등 유명 건축가들이 참여했다.

또 (주)하정종합건설, 청도건설(주), (주)최가철물점, 남광건설(주), 정원종합건설(주), (주)재호 등의 시공사가 참여해 공사를 도왔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국립공원의 아생화

잎 붙인채 모진 겨울 이겨내는 길조화



<101> 인동덩굴

인동덩굴은 인동과의 반상록 활엽의 덩굴성 관목으로 전국 산야에서 잘 자란다. 인동은 활엽성 잎을 붙인 채 모진 겨울을 나기 때문에 참을 ‘인’, 겨울 ‘동’을 써서 ‘인동(忍冬)’이라 이름 붙여졌다. 흰 꽃과 노란 꽃을 한 나무에서 볼 수 있어, ‘금은화’라고도 불렀다. 길조화(吉兆花)라 여겨져 고구려 중묘 벽화나 통일 신라시대 기와 문양에도 사용됐다.

(박성배 내장산국립공원 백암사무소 자원보전과장)

61주기 원도약산 전물경찰관 위령제



장흥경찰서(서장 조상현)는 14일 원도 약산면 장용리 경찰충혼탑에서 유가족과 참전동지회, 경찰관, 보훈단체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61주기 원도약산 전물경찰관 위령제'를 거행했다. /중부취재본부=김용기기자 kykim@

'조선이공대학의 날' 네임데이 행사



조선이공대학(김왕복 총장)은 최근 기아타이거즈와 삼성라이온즈와의 프로야구 경기가 열린 무등경기장에서 '조선이공대학의 날' 네임데이 행사를 열었다. <조선이공대 제공>

건보공단 동부지사 복지시설 위문 격려



국민건강보험공단 광주동부지사 '건강이 봉사단(단장 이주성)은 최근 사회복지시설인 소화천사의 집과 작은 예수의 집을 방문, 원생들을 격려하고 위문품을 전달했다. <건보공단 제공>

'금호영재' 출신 손정범 국제콩쿠르 2위



'금호 영재' 출신인 피아니스트 손정범(20)이 지난 11일 루마니아에서 폐막한 조르주 에네스쿠 국제 콩쿠르에서 1위 없는 2위를 차지했다고 금호아시아문화재단이 14일 밝혔다. 상금은 1만 유로.

한국예술종합학교 4학년에 재학 중인 손정범은 해외유학 경험이 없는 순수 국내파 연주자다.

조선대 정책대학원 광양분원 입학식



이계만 조선대 정책대학원장(사회과학대학 행정복지학부·사진)은 15일 오후 7시 광양커뮤니티센터에서 정책대학원 광양분원 25기 입학식을 개최한다.

동신대 천민우 교수 '세계 100대 전문가'



동신대 천민우 교수(보건행정학과)가 세계 저명 인명사전인 영국 케임브리지 국제인명센터로부터 '2011 세계 100대 전문가'로 선정, 마르퀴스 후즈후에 2011~2012년 2년 연속 등재됐다. /채희종기자 chae@

김수관 원장 대한터관절협 부회장 선임



김수관 조선대 치의학전문대학원장이 최근 대한터관절협 부회장에 선임됐다. 김 원장은 16개 국제학술지의 논문 심사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대한레이저치치학회 부회장 등을 맡고 있다. /채희종기자 chae@

7색 불펜으로 쓴 성경구절이 예수의 모습으로...

여수시청 광영오씨 聖畵 작품전시회

공무원이 불펜으로 성경구절을 써 제작한 성화(聖畵) 작품 전시회가 열릴 예정이다. 관심을 끌고 있다.

여수시청에서 36년째 공직생활을 하고 있는 광영오(57) 감사담당관이 그 주인공으로, 그는 오는 17일부터 20일까지 여수진남문예회관에서 이색적인 성화 전시회를 연다.

이들 성화는 7가지 색깔의 불펜 글씨를 이용해 그린 그림으로, 십자가를 짙어진 모습, 설교하는 모습, 지팡이를 짚고 있는 모습 등 예수의 생애를 표현한 총 120점의 선본이다.

곽 담당관이 성화를 그리게 된 것은 20여년 전 어머니가 크게 건강을 잃고 아내가 교통사고를 당하는 등 개인적으로 많은 시련을 겪으면서 이를 극복하기 위해 틈나는 대로 불펜으로 성경을 필사한 것이 계기가 됐다.

이번 전시 작품은 지금까지 제작한 총 300점 가운데



연설했다. 곽 담당관은 14일 “성경쓰기를 통해 범사에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됐고 어렵고 힘든 시간도 이겨낼 수 있었다”며 “이 그림들이 사람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동부취재본부=김창희기자 chkim@

광주MBC 창사 47주년

지역발전 슬로건 공모전

광주MBC(대표이사 사장 서경주)가 다음달 8일 창사 47주년을 맞아 ‘여러분이 미래를 열어주세요’ 공모전을 개최한다.

이번 공모전은 우리 지역의 발전과 희망을 담은 상징적인 내용의 슬로건과 이름을 찾아 광주·전남의 활로를 찾기 위해 마련됐다.

누구나 참가 가능하며, 1인당 1~10편까지 응모가능하고 형식의 제한은 없다. 15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이메일(kojin32@naver.com), 전화(062-360-2511), 팩스(062-360-2350) 등으로 접수하면 된다.

대상 1명에게는 상금 200만 원과 상패, 우수상 4명에게는 상금 각 50만 원과 상패가 주어진다. 문의 062-360-2333. /김영민기자 kki@

배두나 할리우드 진출작 '클라우드' 크랭크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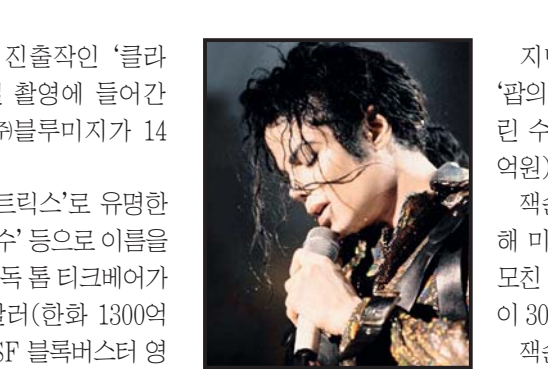


배우 배두나의 할리우드 진출작인 '클라우드 아틀라스'가 오는 16일 촬영에 들어간다고 이 영화의 수입사인 ㈜블루미지가 14일 밝혔다.

'클라우드 아틀라스'는 '매트릭스'로 유명한 워쇼스키 형제와 '올라 칸' '항구' 등으로 이름을 날린 독일 출신의 세계적인 감독 톰 티크머가 공동 연출하고 1억2000만 달러(한화 1300억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SF 블록버스터 영화다.

배두나는 톰 행크스와 수전 서러든, 할리 베리, 휴 그랜트, 벤 휘쇼, 짐 브로드벤트, 짐 스타게스, 중국 배우 저우원 등과 함께 주연급으로 캐스팅됐다. /연합뉴스

마이클잭슨 사후 수입 3000만달러 유족몫



지난 2009년 버디타이 속에서 세상을 떠난 '팝의 황제' 고(故) 마이클 잭슨이 사후에 올린 수입으로 유족들에게 3000만달러(약 330억원) 이상을 물려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잭슨의 유산관리인들은 유산 정산과 관련해 미국 법원에 제출한 기록을 통해 유산 중 모친 캐서린과 잭슨의 자녀들에게 돌아갈 몫이 3000만달러라고 밝혔다.

잭슨은 지난 2009년 6월 숨질 당시 4억달러 이상의 부채를 남겼다. 그러나 사후 음반 판매와 영화 관련, 기념품 판매 등을 통해 작년 말까지 3억1000만달러(약 3403억원)를 벌어들였고 그 이후 지금까지 유산에서 추가 수입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고 유산관리인들은 설명했다. 유산관리인들은 잭슨의 부채 중 9000만달러 이상을 갚았고 남은 부채도 이자가 낮은 부채로 바꿨다. /연합뉴스

생활게시판

여러분의 생활정보를 실어 드립니다. opinion@kwangju.co.kr이나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2가 20-2 광주일보 생활게시판 담당자이름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TEL. 062-2200-628 FAX: 062-222-4938, 222-4918

학측

▲이명삼·고은숙씨 차남 주영(삼정회계법인·공인회계사)군 김용기(광주일보 중부취재본부장)·한영숙씨 장녀 민영(예금보험공사·공인회계사)양=24일(토) 오전 11시 서울대학교 연구공원 예당홀 1층, 피로연 21일(수) 장동근문화관 3층 대회의실.

동창·동문회

▲목포홍일고 재광-북구동문회(회장 박종일) 9월 모임=16일(금) 오후 7시 해오름길식당 062-265-0248, 총무 김내진 011-607-1481.

알림

▲9월 10일 세계자살예방의날 기

모집

▲리본공예 수강생=취미반, 지도자반, 창업 자격증반 수시모집 010-9853-2121.

▲어린이재단 전남가정위탁지원센터 위탁부모=부모의 사랑, 이혼, 실직, 가출, 학대 등으로 친부모와 함께 살 수 없는 아이들을 일정기간 위탁하여 보호할 수 있는 위탁부모 모집. 061-279-1225~6.

▲동구자원봉사센터 봉사자=이미용봉사·풍선아트·도서관리·각종 프로그램 진행 가능자 062-228-1365.

▲어름방학 자원봉사프로그램 참가자=자원봉사 상설프로그램 참가자. 인권, 환경등 주제가 있는 자원봉사 상설프로그램 학습 및 활동, 초등학생, 청소년 일반시민 누구나 참

부음

여가능. 봉사활동 확인서(3시간) 발급, 광주광역시자원봉사센터 062-613-5587.

▲조기축구 회원=운동으로 신체와 마음을 건강하게 하실분 모집. 문화초등학교 오전 6시~7시 011-641-0741(손철동)

▲선분례씨 별세 이일순·이순씨 모친상=발인 16일(금) 조선대병원 장례식장 2분향소 062-231-8902.

▲남현근씨 별세 유영희(광주 CBS 기자)·박영우(해남군청)·조종현(장항외과 원장)씨 빙부상=발인 15일(목) 광주기독병원 장례식장 010-7343-1513.

▲이봉석씨 별세 창수·민수·순례·영자·삼순·말순씨 부친상=발

인 15일(목) 무등장례식장 101호 062-515-4488.

▲정희중씨 별세 만영·운영·춘영·상옥·영희씨 부친상=발인 15일(목) 무등장례식장 203호 062-515-4488.

삼가 故人之冥福을 빕니다 弔

故 방대식 님(남/88세) 子/子婦: 방태열, 태현 / 임승희 태신 / 최영주 未成人: 박영례 호실201호 장지: 화순동북 발인: 9월 16일 연락처: 227-4381	故 하홍성 님(남/81세) 子/子婦: 하석훈/이순란, 석중/정은자 석민/김경순, 석주/이문옥 女/婿: 하혜덕/김신배, 미경/정인세 호실101호 장지: 화순 이서 발인: 9월 15일 연락처: 227-4385
故 조덕순 님(여/78세) 子: 정진규, 진용, 민기 女/婿: 정영자/남기남, 명신/최 승, 명숙/김효남, 은숙/이월선, 용숙/김광표 호실401호 장지: 영락공원 발인: 9월15일 연락처: 227-4383	故 김아임 님(여/98세) 子/子婦: 류중복/김경자 女/婿: 류영남/, 양순/신배식, 양림/신옥식, 양남/신두희 호실402호 장지: 영락공원 발인: 9월 15일 연락처: 227-4314

마음까지 편안하 **孝** 금호장례식장 http://www.mykumho.com 문의 (062)227-4000

故人之冥福을 빕니다 弔

故 신복용(파스칼) 님(남/80세) 子/子婦: 신준/성윤희, 기창/김영원(주대학교교수)/임신희 女/婿: 신혜원/황석정(전주공고 교사), 해선/김호성 未成人: 손정자 발인: 9월 16일 08시00분 장지: 북구삼동 성영(영락) 연락처: 250-4412	故 안홍순 님(남/81세) 子/子婦: 안병태(육군36사단 사단장)/김이숙 병철, 병주/양지은 女/婿: 안병임/이문백, 순자, 미경/김철 발인: 9월 15일 07시00분 장지: 보성군 노동면 선영 연락처: 250-4413
故 변금순 님(여/83세) 子/子婦: 김영민/유남순, 수양/권순림 중현/이재순, 영태/김미진 女/婿: 김선자, 성영/장영수 발인: 9월 15일 08시00분 장지: 장흥관산 연락처: 250-4409	故 박효일 님(남/78세) 子/子婦: 박준규/유문숙, 준영/현영미, 준현 女/婿: 박희지/정영근, 미역/김삼호, 미순/최장근, 미경/신재복 발인: 9월 15일 08시00분 장지: 대전 현충원(영락) 연락처: 250-4406
故 박말남 님(여/90세) 子/子婦: 유경태/유말남, 병식/리순천, 병모/고인숙 女/婿: 유경택, 병일/이백은, 병림/김순호, 병남/신정인 발인: 9월 16일 00시00분 장지: 방월동 연락처: 250-4407	

그린 장례식장 24시간대기 (062)250-4455 광주광역시 북구 문흥동 876-17